

濟州島方言의 接尾辭 考*

— 人稱接尾辭를 中心으로 —

金 洪 植**

目 次

I. 序 論	2. /-바리/
II. 人稱接尾辭 目錄	3. /-다리/
III. 人稱接尾辭의 考察	4. /-방/
1. /-개/	IV. 結 論

I. 序 論

濟州島(以下 本島)는 本土와 遠隔한 絶海의 孤島라는 地理的, 歷史的 特殊 與件으로 過去에 그 言語에 있어 改新波의 影響을 받음이 늦어 顯著한 閉鎖性을 띠고, 本島 自體로서 獨特한 分化的 發達을 遂行하여 왔음은 勿論이려니와, 또한 言語의 古形態도 다른 어느 地域方言 보다도 많이 保有되어 있을 可能性이 濃厚하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濟州島方言(以下 本島方言 또는 方言)은 方言學的으로, 또는 言

* 이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副教授

語地理學的으로 特異한 研究 對象이 됨은 勿論, 言語의 古代性的 暗示가 國語의 史的研究에도 도움이 되는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이 本島方言에서 埋沒되었거나 埋沒되어 가는 語의 露頭를 찾아 내어 얻어진 資料에서, 그 新古를 가려내어 15世紀의 國語 形態를 抽出하여 낼 수 있음은 勿論, 文獻 以前時代 國語의 再構에도 많은 示唆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本島方言이 他地域方言보다 顯著한 差異를 示顯하고 있는 것은, 分裂되기 以前의 言語狀態를 維持하고 있는 데 있다. 音韻이나 語彙面에서도 그러하려니와, 特히 派生接尾辭等 形態論的 領域에서는 더욱 顯著한 것으로 造語論的으로도 特異한 語尾와 接尾辭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本島方言에서의 接尾辭는 陸地部 諸方言에 比해서 매우 多樣하고 複雑한 樣相을 띠고 있다고 보아지니, 이 人稱接尾辭等에 있어서도 陸地語보다 顯著하다고 본다.

接尾辭는 한 語彙가 出發點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加重해서 附加된다. 그래서 한 語彙의 方言的 特色을 表示하는 데는 接尾辭의 接尾作用의 役割이 至大하다고 할 것이니, 接尾辭는 한 語彙를 方言化시키는 重要한 要因이 된다고 할 것이다. 本島方言에서 特히 語彙面에 있어 方言化的 促進은 이와 같은 接尾辭의 接尾作用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接尾辭에 관한 考究는 廣範하고 또한 複雑한 對象이라고 생각되거나와, 本島方言에서 實現되고 있는 接尾辭들도 그 類型이 大端히 複雑하고 生産的이어서 그 全部를 記述 舉論하기란 至難한 作業이라 본다.

本 小稿에서는 考察의 範圍를 方言接尾辭中 特히 人稱接尾辭에 限定하고 그 接尾辭를 方言에서 抽出 그 目錄과, 接尾辭가 語根에 後接하며 人稱名詞를 形成한 方言 語例를 들고, 또 이 方言接尾辭中 特히 /-개, -바리, -다리, -방/等에 대하여 意味論的 側面에서 그 形成 過程과 그 語源等을 追跡하여 본다.

또한 이들 接尾辭가 後接 形成된 方言語辭中 特異한 方言語彙에 대해서도 考察, 共時態에 있어서의 通時性等 方言語辭가 갖는 共時的 通時的 意義에 對하여 窺視하여 보고자 한다.

또 比較的 觀點에서 이들 人稱接尾辭를 後接, 人稱名詞를 派生하는 造語現象을 隣近 同系語(特別히 日本語)와도 比較하여 言語系統上的 相互關係에 대해서도 推察하여 보고자 한다.

II. 人稱接尾辭 目錄

다음에 方言 接尾辭 中에서 抽出되는 人稱接尾辭의 目錄을 提示한다.

여기 提示하는 接尾辭는 極히 一般性이 있는 것과, 또 漢字語系 接尾辭는 除外하고, 比較的 方言의 特色이 保有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部類만을 골라 그 目錄을 “가나다” 順으로 排列한다.

그리고 人稱接尾辭의 各 項目마다 人稱名詞의 方言 語例를 하나씩 들어 두었다.

1. 一개. 업개 (업저지)
2. 一것. 쌍것 (상놈)
3. 一골. 약골 (허약한 사람)
4. 一핑이. 원핑이 (왼손잡이)
5. 一구리. 똥싸구리 (똥싸개)
6. 一귀. 자자귀 (多辯家)
7. 一기. 충기 (愚鈍한 사람)
8. 一꾸레기. 장난꾸레기
9. 一꾼. 장꾼
10. 一내. 늙신내 (老人)
11. 一내기. 뜨내기
12. 一넌. 셋넌 (세째 딸)
13. 一눔. 셋눔 (세째 아들)
14. 一다리. 도망다리 (죽은 애기)
15. 一대. 저대 (官妓)

16. -매기, 육매기 (육을 잘하는 사람)
17. -둥이, 흥새둥이 (보채며 어리광 부리는 아이)
18. -리, 버버리 (병어리)
19. -마님, 할마님 (할머님)
20. -망, 아지망 (아주머니)
21. -매, 노토매 (無職으로 노는 사람)
22. -맴, 할맴 (할머님)
23. -맹이, 졸맹이 (못난이)
24. -미, 할미 (할머니)
25. -바리, 늙바리 (老人)
26. -바시, 걸바시 (乞人)
27. -바치, 썩바치 (썩 사랑하는 사람)
28. -방, 심방 (무당)
29. -배기, 엷배기 (곰보)
30. -뺨, 오라뺨 (오라버님)
31. -뺨이, 뺨뺨이 (어리석은 사람)
32. -보, 청보 (언청이)
33. -부개, 밥부개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알잡아 부르는 말)
34. -붕이, 두루붕이 (반편이)
35. -붕태, 솟붕태 (솟된 사람)
36. -새, 등굼새 (등이 굼으려진 不具者)
37. -생이, 출람생이 (잘 까부는 경솔한 사람)
38. -쉬, 귀막쉬 (귀먹은 사람)
39. -시, 죽시 (미련한 사람)
40. -쌈기, 오줌쌈기 (오줌싸개)
41. -아리, 머두아리 (머듬거리는 사람)
42. -아지, 아버지 (아버지)
43. -앙, 아방 (아버지)
44. -애, 두루애 (精神異狀者)

45. -애기. 모래기 (병어리)
46. -앵이. 능그랭이 (능글맞은 사람)
47. -엉. 어멍 (어머니)
48. -오기. 모로기 (병어리)
49. -와리. 더두와리 (더듬거리는 사람)
50. -와시. 게와시 (乞人)
51. -와치. 불미와치 (대장장이)
52. -우리. 태우리 (牧童)
53. -재기. 보재기 (漁民)
54. -쟁이. 늙쟁이 (老人)
55. -퀴. 목퀴 (약은 사람)
56. -지. 민지 (미련장이)
57. -지기. 문지기
58. -챙이. 얼챙이 (언척이)
59. -초관. 담배초관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사람)
60. -치. 남헛치 (원숭이 띠)
61. -태. 전태 (다리가 전 사람)
62. -패. 노름패 (도박꾼)
63. -팽이. 늬팽이
64. -푸대. 술푸대 (술꾼)

Ⅲ. 人稱接尾辭의 考察

人稱接尾辭는 어떤 語根이나 品詞의 意味部에 後接해서 人稱名詞를 派生하고, 그 名詞가 指示하는 사람을 指稱하는 接尾辭이다. 다시 말하면 人間의 職業, 性質, 習慣, 性向 또는 行動, 姿態 등을 나타내는 말에 後接해서 그러한 사람을 指稱하는 데 쓰이는 接尾辭이나, 大概의 경우 이 人稱接尾辭는 사람을 指

稱함과 아울러 輕蔑, 或은 卑俗, 或은 親近性 乃至 愛稱의 意味를 附加한다.

本稿에서는 特히 /-개, -바리, -다리, -방/ 等に 대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1. /-개/

- (1) 업개 [əp - kɛ] (업저지)
- (2) 뺨롱개 [ppɛl - loŋ - gɛ] (눈알이 튀어난 小兒)
- (3) 덜렁개 [tɔl - ləŋ - gɛ] (性質이 沈着하지 못하고 덜렁이는 사람)
- (4) 병개 [pəŋ - gɛ] (미련한 사람)
- (5) 먹개 [mək - kɛ] (融通性이 없는 사람)
- (6) 누개 [nu - gɛ] (누구)
- (7) 아방개 [a - baŋ - gɛ] (父)
- (8) 어멍개 [ə - məŋ - gɛ] (母)
- (9) 다당개 [ta - daŋ - khɛ] (약삭빠르고 수다스러운 사람)

以上 /-개/ 後接 人稱名詞를 方言 語例에서 들어 보았다. 위 語例中 몇 語辭를 抽出하여 그 語義 乃至는 語源에 대하여 살펴 본다.

語例(1)/업개/는 動詞語幹 /업(負) -/에 /-개/接尾辭가 後接하여 “업저지”의 意味인 人稱名詞를 派生한 것이다. 方言에서는 이 “애기업개”라는 말이 談話에서 흔히 쓰인다.

語例(6) /누개/는 /누(誰) + 개/로 보겠는데, 方言에서의 語例를 보면,

누개가	(누구가)
누개고	(누구나)
누개영 갈티	(누구하고 가겠느냐)
누개 룬으니	(누구 같으냐)

等과 같은 語形이 實現됨을 볼 수 있는데, /누개/는 標準語 /누구(誰)/에 該當되는 方言語形이며, 여기서 /-개/는 人稱接尾辭로서 基語 /누(誰)/

에 後接하여 /누개/形을 이룬 것으로 본다.

語例(9)/다당개/는 그 實現 頻도가 稀少한 語辭로서, 方言에서는 그 性情이 매우 악착 수다스러운 사람을 指稱하는 말이다. 이 語辭의 淵源에 대해서는 分明치는 않으나 文獻에서 이를 찾아 보면,

請드른 다대와 노니샤	<龍歌: 52>
韃韃洞 (다대밭)	<龍歌: 33>
다대달 韃	<訓蒙: 中·四>
다대 자보돌 얻고저	<杜詩: 一九·47>

등의 語例를 찾아 볼 수 있으니, 여기서 /다대/는 韃韃를 指稱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韃韃은 아마 터어키族의 하나인 Tatar을 말함인 듯하다.¹⁾ 이 /다대/란 말은 現代國語에서는 이미 消滅語가 된 지 오래되었으나 鮮初에는 一般的으로 通用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本島方言에서는 稀少하기는 하나 現今도 “다대 같은 놈, 다당개 같이”라는 말이 原語民間에서는 間或 實現되기도 하니, 이 方言 語形인 /다대/乃至 /다당개/는 15世紀 文獻語인 /다대/와 脈絡이 닿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다다+개/와 같이 接尾辭 /-개/가 後接 統合되는 過程에서 音韻의 變化로 말미암아 /다당개/로 된 것이 現 方言 語形이라고 推定된다.

以上 든 바는 方言에서 /-개/ 接尾辭가 語基에 後接 人稱名詞를 派生하고 있으니 이때의 /-개/는 人稱接尾辭로 볼 것이다. 또한 方言에서 接尾辭 /-개/는 名詞形成 接尾辭로서 用言의 語幹과 名詞 및 그 語根에 後接하여 普通名詞를 派生시키는 勿論이다. 다음에 그 方言 語例를 提示하여 본다.

독개 [tok-kε] (도리깨)
дук개 [tuk-kε] (蓋)
막개 [mak-kε] (방망이)

1) 金亨奎, 「古歌謠註釋」(서울: 一潮閣, 1968), p.289.

- 고들개 [ko-dwɛ-gɛ] (경거리)
 약들개 [jak-tol-gɛ] (밥을 담은 竹罌)
 꿀약개 [kkul-jak-kɛ] (맛 있는 飮食)
 오좀개 [o-zom-kkɛ] (膀胱)
 실개 [sil-gɛ] (膽囊)
 복숭개 [pok-soŋ-gɛ] (柳)
 소개 [so-gɛ] (綿)
 등개 [tuŋ-gɛ] (그네)
 등지개 [twŋ-zi-gɛ] (등거리)
 헛개 [hət-kɛ] (허깨비)
 식개 [sik-kɛ] (祭祀)
 모개 [mo-gɛ] (顛)
 야개 [ja-gɛ] (顛)
 밥개 [pap-kɛ] (갯강구)
 발개 [pal-gɛ] (노래기)
 빅개 [pik-kɛ] (팽이상어)
 문개 [mun-gɛ] (문어)
 줍개 [cɛp-kɛ] (도롱이)
 밥깨 [pap-kkɛ] (밥알)
 서함개 [sɔ-njuŋ-gɛ] (모양)
 우시개 [u-si-gɛ] (우스개)
 입위개 [ip-jək-kɛ] (口舌)
 점개 [cɔŋ-gɛ] (慳)
 편개 [phən-kkɛ] (번개)

以上 方言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개/ 接尾辭는 標準語系에서는 주로 器具名을 나타내는 名詞를 派生시켜 왔음이 一般의임에 대하여, 本島方言에서는 器具名은 勿論 一般物名, 抽象語 및 人稱名詞 等에도 接尾되는 事例를 볼 수 있으니, 그 使用 範圍가 廣範하고 매우 生産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人稱接尾辭로 使用되는 事例는 他 地域方言보다도 越等하게 優勢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것은 通時的으로도 매우 意義가 있는 것으로서, 이 /-개/ 接尾辭의 淵源을 追跡하여 보는 데도 한 暗示를 던져 주는 것이라고 본다.

言語의 發達 過程에 있어서 實辭의 虛辭化란 過程을 考慮할 때, 이 /-개/ 型 接尾辭도 原來는 具體的인 한 名詞이던 것이 次次 抽象的인 方向으로 發達하여 마침내 虛辭化된 오늘날과 같은 接尾辭로 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래서 이 /-개/는 原來 主로 人稱을 指稱하는 名詞가 아니었던가 推測하여 보게 되며, 마침내는 虛辭化하여 人稱接尾辭로 使用하게 된 것이 아닌가 想定된다. 崔鶴根氏도 이에 대해서 “이 [-ge]는 原來 「사람」을 指稱하는 데 使用한 것으로 생각한다. 特히 「작은 사람, 卽 小兒」의 凡稱으로 使用하던 것이 漸次로 小兒의 이름에 後接해서 그 愛稱으로 使用되어 오다가 또다시 事物의 名稱에도 後接해서, 特히 「작은 것」을 指稱하는 名詞에 後接해서 縮小接尾辭로 그 使用 範圍가 擴大된 듯하다”고 하였다.²⁾

그러면 다음에 過去 文獻上에서 이 /-개/ 型 接尾辭를 人名等에 後接시킨 事例를 찾아 보면, 新羅時代의 人名에서 「南解, 脫解, 象解, 乞解, 奈解」 등의 「解」 및 新羅 始祖의 「昔脫解」의 「解」는 이 [-kai], [-ge]가 아니었던가 한다.³⁾

現代國語에서는 “아모개, 똥싸개, 오줌싸개” 등에서 /-개/ 接尾辭가 人稱接尾辭로 使用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古語에선 더 많이 쓰여졌을 것으로 推定되는 것이며, 또한 言語의 古形이 比較的 豐富하게 保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本島方言에 있어 前述한 바와 같이 /-개/ 接尾辭가 人稱接尾辭로 使用되고 있는 事例가 共通語系에 比해서 比較的 豐富함도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한 傍證이 될 것으로 본다.

다음에 同系語와의 比較的 觀點에서 볼 때, 接尾辭를 가지고 두 言語를 比較 研究하는 것은 造語의 觀點에서 두 言語의 系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아

2) 崔鶴根, 「國語方言學序論」(서울:精研社, 1959), p.289.

3) Ibid. p.322.

니라, 接尾辭 가운데는 原語에 있어서 共通語로 同一한 일도 많기에 語彙의 觀點에서도 重要的 材料가 되는 일이 많다.

文化交流와 함께 語彙의 授受는 새로운 文物과 더불어 얼마든지 可能하다. 그러나 그 社會의 造語法上으로 要緊하게 쓰이는 接尾辭는 大部分의 境遇 意味的인 獨立性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의 借用은 곧 語法의 借用과 같은 結果를 招來하므로 좀처럼 借用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單語의 比較보다는 훨씬 더 價値 있는 것이라 하겠다.

滿洲語等에서는 國語의 /-ke/에 該當되는 接尾辭에 /-ku/라는 接尾辭가 使用되고 있음은 特記할 만한 事實로 比較가 可能하다고 본다.

〈滿洲語〉

chiruku	(베게)
tuku	(도리끼)
eliku	(비)
mamgiyaku	(奢侈人)
kimchiku	(精細人)
ahungga	(大兄)
egungga	(大姪)

〈蒙古語〉

kügüge	(鼓)
nambura	(皮袋)
gergei	(妻)
ecige	(父)
ahara	(叔)
ebige	(祖)

以上 보는 바와 같이 /-ke/型 接尾辭는 一般 物件을 指稱하는 接尾辭와, 또 사람을 指稱하는 名詞에 後接하여 人稱接尾辭로도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겠

다.

이 /-ke/類 接尾辭는 이들 言語 外에도 土耳其語 等 Altai 語系에 共通的으로 있는 現象으로 보아 이러한 起源은 Altai 語族의 共通祖語에까지 遡及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推定된다.

또한 隣近 日本語에도 이 /-ke/類 接尾辭가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想定되니, 現代 日本語中에서도 語末에 /-ke/音으로 끝나는 語辭가 相當數 있는데, 이 語末의 /-ke/音은 根源的으로 基語에 後接된 接尾辭가 아닌가 생각된다.

ハタケ	[ha-da-kke]	(田)
タケ	[ta-kke]	(竹)
カゲ	[ka-ge]	(影)
コケ	[ko-kke]	(苔)
イケ	[i-kke]	(池)
サケ	[sa-kke]	(酒)
タケ	[ta-kke]	(岳)
トオゲ	[to-o-ge]	(峴)
ノミスケ	[no-mi-su-ke]	(大酒家)
メカケ	[me-ka-kke]	(妾)

以上 語例에서 語末音 /ㄱ[ke]/는 基語에 後接된 接尾辭로 보며, 이것은 韓國을 爲始해서 Altai 語系에서 共通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接尾辭 /-ge/와 同類의 것으로 想定된다.

또 日本語에서도 이 /ㄱ[ke]/接尾辭는 人稱接尾辭로도 使用되고 있음을 위 語例에서 보아도 알 수 있겠으며, 또 日本書紀等에 나타나는 「莫古解」 「阿直岐」等の 「解」 「岐」 等도 이 人稱接尾辭 [-kai], [-ge] 인가 推定된다
이와 같이 /-ke/型 接尾辭는 日本語에서도 일찍부터 存在하였던 것으로 보
아지며, 이것은 一般物名뿐만 아니라 人稱接尾辭로도 使用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겠다.

接尾辭는 大部分의 경우 意味的인 獨立性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리 容易

하게 借用하는 일이 없다는 點에서, 言語의 系統을 밝히는 데 좋은 資料가 된다고 보는데, 이 /-ke/型 接尾辭가 日本語에도 存在한다 함은 韓國語와 日本語와의 關係 乃至 日本語의 系統을 究明하는 데 많은 示唆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바리/

- (10) 비바리 [pi-ba-ri] (處女)
- (11) 냉바리 [nɛŋ-ba-ri] (既酷女)
- (12) 왜바리 [wɛ-ba-ri] (왈가닥)
- (13) 악바리 [ak-pa-ri] (포악한 女子)
- (14) 늙바리 [nuɬ-ba-ri] (老人)

以上은 /-바리/型 接尾辭가 後接하여 派生된 人稱名詞들이며, 여기서 接尾辭 /-바리/는 人稱接尾辭로 볼 수 있겠다.

語例 (11) /비바리/는 本島의 特殊方言語彙로서 陸地部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이다. 이 /비바리/의 語義는 조금 成熟하나 未婚인 女子에 대한 呼稱으로 多少 下待 乃至 輕蔑하는 卑稱이다.

그러면 여기서 /비바리/ 語辭의 形態를 分析 人稱接尾辭로서 /-바리/의 成立過程과 그 語源에 대해서 管見을 들어 본다. /비바리/는 /비+바리/의 二性分으로 分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바리/를 派生接尾辭로 處理한다면, 接尾辭 /-바리/에 先行하는 /비/는 自立形式의 基語가 됨이 一般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自立形式의 基語로써 /비/는 어떤 意味를 갖는 것인가? 우선 이 /비/를 固有語로 볼 때, 그 語義를 全然 알아 낼 수가 없다. 또 文獻上으로도 그 語例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에 이 /비/의 뜻을 漢字語에서 求해 보기로 한다. 漢字語에서 /비/音을 가진 女子를 意味하는 말로 “婢” 또는 “妃”에 附會하여 볼 만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앞에 든 語例 (11)~(15)에서 볼 때도 接尾辭 /-

바리/가 基語에 後接해서 派生된 名詞는 一般的으로 女性을 指稱하는 人稱 名詞가 많기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接尾辭 /-바리/는 女性을 指稱하는 人稱 接尾辭로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비바리/의 語根 /비/도 女性을 意味하는 語辭일 可能性이 짙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漢子語인 形態素 “婢”를 成分上 어떻게 보느냐가 問題다. 같은 漢字語中에서도 「山, 江, 窓…」等은 自立語지만 「河, 家, 川, 木…」等은 國語에서는 依存形式인 造語成分으로만 나타난다. 이런 觀點에서 보아 여기 “婢”도 中國語에서는 自立語가 될 수 있어도, 國語에서는 自立形式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여기서 接頭辭로 規定지을 수만도 없으므로, 이 “婢”를 우선 依存形式인 造語成分 卽 基語로 보고자 한다.

그래서 /비바리/는 依存形式인 造語成分 “婢”에 派生接尾辭 /-바리/가 接尾되어 形成된 派生語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意味上으로 볼 때 도 “婢”는 女子를 낮추어 일컫는 말이니 “婢+바리” 卽 “비바리”는 조금 成熟하나 아직 婚前의 處女에 대하여 좀 下待 乃至 輕蔑하는 뜻을 지닌 “비바리” 語辭가 가지는 語義와 關聯하여 볼 때, “비바리”의 “비”는 漢字語인 “婢”에서 由來됨이 아닌가 想定하여 보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는 接尾辭 /-바리/가 人稱接尾辭로서 基語에 後接 人稱名詞를 派生하는 語例를 들어 考察하여 보았거니와, 接尾辭 /-바리/는 또 方言에서 基語에 後接 普通名詞를 派生하는 語例도 찾아 볼 수 있다.

- 곰바리 [kom-bari] (곰팡이)
- 돔바리 [tom-bari] (도미)
- 북바리 [puk-pari] (북바리)
- 다굼바리 [tagum-bari] (다굼바리)
- 족바리 [čok-pari] (病身牛馬)

以上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接尾辭 /-바리/는 動物, 特히 魚名에 많이 使用되고 있다. 여기 魚名에 쓰이는 /-바리/도 名詞派生接尾辭로서 前述

한 人稱接尾辭 / -바리/와 造語法上 그 軌를 같이 하는 同類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接尾辭 / -바리/의 語源에 대해서 推察하여 보기로 한다. 本來 接尾辭는 文法的인 職能보다도 새로운 意味를 더해 주는 語彙的인 機能이 主가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接尾辭는 그 語源이 大概 獨立된 뜻과 形態를 가진 自立形式이었으리라는 짐작이 可能하다.⁴⁾

그래서 이 接尾辭 / -바리/는 歷史的으로 볼 때 元來는 自立形式의 單語로서 훌륭히 使用되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本島方言에서 /바리/란 語辭는 前述한 派生接尾辭로 뿐만 아니라, 自立形態로도 쓰이니 마소에 짐(荷物)을 싣는 分量의 單位로, 또 穀物 등 其他 事物의 數量의 單位를 말한다.

또 本島方言에서는 말(馬)의 匹數에도 “한바리(一匹), 두바리(二匹)…” 등과 같이 /바리/가 쓰이니, 말(馬) 以外的 다른 家畜 乃至 動物의 數單位를 나타내는 말로는 ‘마리(頭)’를 使用함이 一般의임에 대해서, 唯獨 말(馬)의 數單位에만 이 /바리/가 使用됨은 本島의 馬名, 馬具名等에 蒙古語의 痕迹이 오늘날에도 많이 남겨져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말(馬)의 匹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이 /바리/는 或이면 蒙古系語에서 由來됨이 아닌가도 臆測을 하여 본다.

以上과 같이 /바리/란 말은 現在 獨立語로 쓰이는 일이 없고, 主로 짐(荷)의 單位를 말할 때 “한바리, 두바리…”란 말이 쓰일 뿐이다. 그러나 이 /바리/의 原意는 짐(荷物) 自體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推定된다. 그것은 比較的 觀點에서 보아도, 이에 對應되는 語例로 滿洲語에서는 “荷物” 또는 “묶는다”는 뜻으로 /fali/라는 말이 쓰인다고 하니,⁵⁾ 이것은 /바리/와 相互 脈絡이 닿는 卽 같은 語源에서 出發 派生되어 나온 말이 아닌가 보아진다.

그래서 이 짐(荷物)을 意味하던 自立形式인 /바리/는 漸次 虛辭化 過程

4) 김문웅, 「국어교육연구(10)」(大邱:慶北大師大 國語教育研究會, 1978), p.85.

5) 金亨奎, 「國語學概論」(서울:一潮閣, 1981), p.237.

에서 오늘날 本島方言에서 보는 바와 같이 牛馬 等に 짐(荷物)을 싣는 單位, 또는 數量的 한 單位로 쓰이게 되었고, 이것이 또 自立性을 傷失하게 되어 特定한 語根에 統合되어 依存形式인 接辭化함으로써 典型的인 接尾辭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自立性을 傷失한 接尾辭 /-바리/와 그의 根源이 되는 自立形式 /바리/(數量的 單位) 사이에는 形態的으로 有緣性은 뚜렷하나, 意味上의 有緣性은 거의 認識되지 않는다. 卽 接尾辭 /-바리/는 形態的으로는 自立形式 /바리/와 關聯이 있으나 意味上으로는 有緣性을 찾을 수 없는 接尾辭의 職能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본다.

日本語에서도 보면,

ヒバリ	[hi-bari]	(종다리)
ユバリ	[ju-bari]	(尿)
イバリ	[i-bari]	(尿)
ヨクバリ	[joku-bari]	(慾心장이)

등의 語例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바리[bari]/는 接尾辭로 볼 것이며, 이것은 國語의 接尾辭 /-바리/와 같은 類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 /-다리/

語基에 接尾辭 /-다리/가 後接하여 人稱名詞를 派生시키는데, 이때의 派生接尾辭 /-다리/는 人稱接尾辭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 方言 語例를 들어 본다.

- (15) 피다리 [kkoi-dari] (피보)
- (16) 광절다리 [kwaŋ-čəl--dari] (미치광이)
- (17) 간세다리 [kan-se-dari] (개으름뺨이)
- (18) 군웅다리 [kun-juŋ-dari] (마음씨가 몹씨 陰險한 사람)

은 말은 直接的인 表現을 避하고 間接的으로 表現하고자 하는 데서 緣由됨이라고 하겠다. 卽 우리는 “죽음”에 關한 말을 제대로 쓰기를 싫어한다. “죽었다”라는 말 代身에 “世上을 떠났다”, “운명 했다”, “갔다”, “돌아갔다” 등을 흔히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過去 醫藥이 發達되지 못하였던 時節에는 幼兒의 死亡率이 大端히 높았으며, 父母의 편에서는 子息의 生命에 대해서 恒常 不安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不吉한 子息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아 죽었다는 말을 直接 表現할 수가 없어 婉曲表現法(epithemism)을 쓰게 된 데서 由來된 것으로 본다.

語例(29) /용다리/도 本島의 特殊方言이라고 보며, 癩病患者를 이르는 말이다. 그 語形 分析은 /용+다리/로 보겠는데, 여기서 語基에 該當하는 成分 /용/의 語義에 대해서는 잘 알아 볼 수가 없다. 臆測을 하여 본다면 /용/은 漢字語 /龍/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癩病患者의 兪測하고 醜한 물골과, 또 所謂 天刑病이라고 하는 癩病患者에 대한 恐怖感에서 直接 表現을 못하고, 婉曲하게 美化시켜서 表現하고자 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以上은 方言에서 接尾辭 /-다리/가 語基에 後接 人稱名詞를 形成하는 語例에 대해서 살펴 보았거니와 이 외에도 方言에서 接尾辭 /-다리/는 매우 生産的이어서 一般物名은 勿論 動物名, 또는 地名接尾辭로까지 廣範하게 使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人稱接尾辭로 使用되는 경우를 考察의 對象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方言 語例만을 提示함에 그친다.

삭다리	[sak-tari]	(삭정이, 枯枝)
• 싼다리	[swin-dari]	(싼 밥으로 만든 飮料)
목다리	[mok-tari]	(좁은 길목)
지다리	[či-dari]	(두더지)
비근다리	[pi-kwn-dari]	(팽어상어)
복시다리	[pok-si-dari]	(腰椎가 상한 말)
갈뚝다리	[kal-ttwi-dari]	(後脚이 상한 말)
고분다리	[ko-bun-dari]	(朝天面 臥屹里境 地名)

／공다리／의 뜻이 무서운 사람 卽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恐怖의 對象이 되는 사람임은 分明하다. 그것은 예전에는 어린아이의 世界에 있어서 무서운 對象은 아무래도 鍼術人이라고 하겠다. 醫術이 發達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鍼術行爲가 많이 行하여지는데, 過去 醫術이 發達되지 못했던 時節에 있어서 鍼灸療法은 普遍的인 一種의 醫療行爲였으니, 特히 小兒들에게 많이 施術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린아이에 있어서 鍼灸師는 恒時 무서운 恐怖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공다리／의 ／공／은 鍼術行爲 그 自體에서 온 一種의 象徵語라고 보아지며, 이 ／공／에 接尾辭 ／- 다리／가 後接한 ／공다리／는 原來 鍼術人의 뜻이지마는, 그 語義가 擴大되어 무서운 사람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며, 方言에서는 普通 어린아이들이 보채고 울 때 그 울음을 그치게 하는 方便으로 “공다리 온다”고 하여 어린 아이를 달랠 때 쓰여지기도 한다.

또 한편 ／공／은 漢字語인 ／恐／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가도 推測되니, 依存形式인 造語成分인 ／恐／에 人稱接尾辭 ／- 다리／가 後接하여 ／공다리／란 人稱名詞를 派生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恐다리” 卽 “공다리”는 낮설고 무서운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공다리／ 語辭가 갖는 語義의 歷史的, 社會的 背景에 대해서 臆測을 加하여 본다며는 本島民은 過去 歷史的으로 볼 때, 本土에서 來島한 貪官汚吏의 苛斂誅求와, 蒙古族을 爲始한 이웃 倭寇들의 數없는 侵奪과 跋扈等, 이 모든 外來者들은 質朴 善良한 島民에 대해서는 恒常 恐怖의 對象인 卽 ／공다리／의 存在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本島가 過去에 處했던 歷史的, 社會的 特殊相을 反映해서 나온 말이 ／공다리／가 아닐까 推想하여 본다.

語例 (22) ／도망다리／는 名詞 ／도망／에 接尾辭 ／- 다리／가 後接해서 人稱名詞를 派生시키고 있다.

方言에서 이 ／도망다리／라는 말은 이미 죽어 없는 사람을 意味하나, 主로 小兒에 대해서만 使用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때의 接尾辭 ／- 다리／도 亦是 人稱接尾辭라고 볼 수가 있겠다.

死者를 ／도망다리／라고 함은 一種의 禁忌詞 (taboo)에 基因하는 것으로 人間은 本性이 不吉한 것, 醜雜한 것, 害되는 것들을 꺼리기 때문에 이와 같

은 말은 直接的인 表現을 避하고 間接的으로 表現하고자 하는 데서 緣由됨이라고 하겠다. 卽 우리는 “죽음”에 關한 말을 제대로 쓰기를 싫어한다. “죽었다”라는 말 代身에 “世上을 떠났다”, “운명 했다”, “갔다”, “돌아갔다” 등을 흔히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過去 醫藥이 發達되지 못하였던 時節에는 幼兒의 死亡率이 大端히 높았으며, 父母의 편에서는 子息의 生命에 대해서 恒常 不安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不吉한 子息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아 죽었다는 말을 直接 表現할 수가 없어 婉曲表現法(euphemism)을 쓰게 된 데서 由來된 것으로 본다.

語例(29) /용다리/도 本島의 特殊方言이라고 보며, 癩病患者를 이르는 말이다. 그 語形 分析은 /용+다리/로 보겠는데, 여기서 語基에 該當하는 成分 /용/의 語義에 대해서는 잘 알아 볼 수가 없다. 臆測을 하여 본다면 /용/은 漢字語 /龍/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癩病患者의 兇測하고 醜한 물골과, 또 所謂 天刑病이라고 하는 癩病患者에 대한 恐怖感에서 直接 表現을 못하고, 婉曲하게 美化시켜서 表現하고자 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以上은 方言에서 接尾辭 /-다리/가 語基에 後接 人稱名詞를 形成하는 語例에 대해서 살펴 보았거니와 이 외에도 方言에서 接尾辭 /-다리/는 매우 生産的이어서 一般物名은 勿論 動物名, 또는 地名接尾辭로까지 廣範하게 使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人稱接尾辭로 使用되는 경우를 考察의 對象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方言 語例만을 提示함에 그친다.

삭다리	[sak-tari]	(삭정이, 枯枝)
• 신다리	[swin-dari]	(신 밥으로 만든 飲料)
목다리	[mok-tari]	(좁은 길목)
지다리	[či-dari]	(두더지)
비근다리	[pi-kwn-dari]	(팽어상어)
복시다리	[pok-si-dari]	(腰椎가 상한 말)
갈퀴다리	[kal-ttwi-dari]	(後脚이 상한 말)
고분다리	[ko-bun-dari]	(朝天面 臥屹里境 地名)

논다리	[nen-dari]	(濟州市 蓮洞境 地名)
방충다리	[paŋ-čhuŋ-dari]	(舊左邑 演坪里)
종다리	[čoŋ-dari]	(" 終達里)
색다리	[sek-tari]	(" 備達里)
모진다리	[mo-čin-dari]	(" 下道里)
이다리	[i-dari]	(大靜邑 上葦里)
볼근다리	[pəl-gwn-dari]	(大靜邑 日果里)
잘다리	[čal-dari]	(安德面 東廣里)
용산다리	[joŋ-san-dari]	(翰京面 造水里)
한다리	[han-dari]	(翰林邑 歸德里)

그러면 다음으로 이 人稱接尾辭 /-다리/의 語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考察하여 본다.

무릇 接尾辭란 大概가 自立形式하고는 意味上으로 有緣性이 消滅된 狀態에 있기 때문에 本是 接尾辭의 語源을 찾기란 相當히 어려운 일임과 同時에 主觀性이 많이 介入될 弱點을 안고 있는 일이다.

여기 接尾辭 /-다리/도 形態的으로는 自立形式과 關聯이 있으나 意味上으로는 有緣性을 거의 찾을 수 없는 接尾辭의 職能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리/ 接尾辭는 根源的으로 볼 때 “다리(脚)”에서 轉成된 接尾辭라고 본다. 그러나, 接尾辭 /-다리/는 어떤 모양의 사람을 卑下해서 말 할 때 쓰이는 것으로, 自立形式의 /다리/하고는 距離가 멀어진 셈이다.

人間에 있어 身體語彙는 自己認識의 基本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또한 人間은 自己의 身體 各 部位 및 位置 等を 基準으로 해서 空間을 把握하고 또한 때로는 그것을 言語로 轉用하게도 되니, 모든 言語에 있어서 事物을 指稱하는 表現의 大部分은 人間의 身體와 그 各 部分으로부터 轉用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接尾辭 /-다리/도 身體語 /다리(脚)/에서부터 隱喻的 活用に 依해서 接尾辭로 轉用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다음에 國語의 身體語 /다리(脚)/의 隱喻的 活用の 例를 들어 본다.⁷⁾

7) 沈在笑, 「國語語彙論」(서울:集文堂, 1982), p.142.

다리 (脚) > 사물의 가택이, 신분, 토대, 근거, 단계

肢形—지갯다리, 책상다리, 칠판다리

身分—귀향다리, 개다리

土臺—알다리 (앞으로 할 계획, 방안, 예정지)

根據—뒷다리 (굴죄는 일이 있어서 남에게 꼭 잡혀 있게 되는 결점)

그런데 接尾辭 / - 다리 / 가 後接 派生된 人稱名詞는 過去文獻上에는 별로 찾아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아마 이 接尾辭 自體가 一般的으로 卑下 乃至 輕蔑의 뜻을 가지는 것이므로 一般的의 口語로는 使用되었지만은 文語로는 別로 使用되지 않았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沈在箕氏는 “다리(脚)로서 身分을 나타내는 表現은 近代語에서 흔히 쓰였던 것 같다. ‘귀향다리’는 萬言辭에 보이고 ‘개다리’란 단어도 19세기말에 消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⁸⁾

다음에 比較的 觀點에서 보면 日本語에서도 人稱接尾辭로 / - 다리 / 型이 存在한다고 보아진다.

ヒトリ	[hi-tori]	(一人)
フタリ	[fu-tari]	(二人)
ミタリ	[mi-tari]	(三人)
タケトリ	[ta-kke-tori]	(山岳人)

위 語例等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語에서도 ヒ(一), フ(二), ミ(三) 등의 語基에 接尾辭 / -타리 [tari] / 를 後接 사람을 指稱하는 人稱名詞를 派生시키고 있는 것이니, 이 때의 派生接尾辭 / -tari / 는 人稱接尾辭로 볼 것이며, 이것은 接尾辭의 職能 또는 意味上으로 볼 때, 國語의 / -다리 / 接尾辭와 同類의 것이 아닌가 想定된다.

4. / -방 /

方言에서는 또 接尾辭 / -방 / 을 後接하여 人稱名詞를 形成한 一聯의 語例

8) Ibid. p.143.

를 찾아 볼 수 있다.

- (30) 서방 [sə-baŋ] (男便)
- (31) 심방 [sim-baŋ] (무당)
- (32) 중방 [čuŋ-baŋ] (案内人)
- (33) 아지방 [a-zi-baŋ] (아제)
- (34) 하르방 [ha-rw-baŋ] (祖·翁)
- (35) 함덕방 [ham-dək-paŋ] (함덕택)
- (36) 귀덕방 [kwi-dək-paŋ] (귀덕택)

語例(31) /심방/은 方言에서 무당(巫堂)을 이르는 語辭로, 그 語形은 /심+방/으로 分析하여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방/은 人稱接尾辭로 볼 것이나 語基인 /심/의 語義에 대해서는 分明치 않다. 이 /심/의 語義에 대해서 管見을 들어 보면, 이 /심방/을 /神방/에서 由來한 것으로 보고 /심/을 漢字語 神에 附會하여 볼 수도 있겠으나, 筆者는 그 보다도 /심방/의 /심/은 固有語인 /신/이라는 말에서 그 根源을 찾고자 한다.

우리말에 보면 “어떤 일에 精神이 쏠리거나 興이 나게 되거나 하여 일어나는 재미나 흥겨운 기분”을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나다’, ‘신바람’이란 말의 ‘신’이 바로 이 /신/인 것이다.

그러면 이 /신/에 接尾辭인 /-방/이 後接하면 /신방/이 되는데, 方言語形인 /심방/과는 다르지 않으냐고 할 것이나, 이것은 아마 語根 /신/과 接尾辭 /-방/이 統合됨에 있어서 音의 同化作用에 依해서, 語根 /신/이 /심/으로 音變한 것으로 본다. 方言의 語例에서도 “곤밥 > 곶밥(쌀밥)”과 같은 音變 現象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또 文獻上에서도 보면,

한박 꽃 芍藥 薈名 大朴花 (月令:二月)

가 있으니 /한박꽃/은 現代語에서는 /함박꽃/으로 그 音이 變하였음도 이와 同類의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漢字語系인 /神방/보다 固有語인 /심방/이 더 妥當性이 있으리

라고 보아집은 本來 巫俗은 原始 信仰인 shamanism에 淵源된 것이라고 볼 때 이 shaman을 일컫는 語辭는 國語에서도 漢字使用 以前 時代부터 屬有한 말이 있어 온 것으로 推測된다.

또한 /신/ 語辭의 語義로 미루어 보더라도, 元來 무당의 巫俗 行爲 自體가 舞樂이 主가 된다고 보는데, /신방(심방)/ 卽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신난 사람”이라는 뜻에 由來된 것이 아닌가 臆測을 하여 본다.

語例(33) /아지방/은 方言에서는 女子便에서 自己 同生の 男便을 부를 때나 또 自己 男便의 同生에 대한 呼稱이다. 또한 때로는 男子便에서 볼 때 自己 아버지와 同行이나 自己보다 年下의 男子 親戚을 일컫는 데도 쓰이고, 또 女子便에서 親戚 以外의 一般 男性을 指稱하는 말로도 間或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本島方言에서 이 /아지방/ 語辭는 元來 自己 直系 以外의 男子에 대한 一般的 呼稱으로 廣範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겠다.

方言 語形 /아지방/은 /아지/와 /-방/으로 分析하여 볼 수 있으니, /-방/은 人稱接尾辭이며, /아지/는 元來 그 語形이 /아츠>아즈>아지/와 같이 變해 온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아지/는 오늘날은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와 같이 指小詞가 되었지만은 元來 이 /아츠, 아즈/는 小의 뜻을 가진 말이 아니라, 亞(物之較曰亞)卽 根本이 아니라 다음가는 것을 意味하는 말인 듯하다.⁹⁾ 그래서 이 /아지/는 自己 直系 以外의 뜻으로 쓰인 듯하니, 本島方言 /아지방/에서 볼 때도 그렇게 推定된다. 그리고 日本語에서의 伯父와 叔父 그리고 一般 男子의 呼稱인 “オージ(O-zi)”도 “아즈, 아지”와 相互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語例(35)(36) “함덕방, 귀덕방” 등에서도 /-방/은 人稱接尾辭로 시집간 女子의 親庭 동네 地名 아래 붙여, 그 곳에서 온 “부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現代國語의 “宅”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본다. 假令, “함덕방” 하면 함덕(威德)에서부터 시집 온 부인이라는 뜻이다. 이때 地名에 後接되는 /-방/은 人稱接尾辭가 될 것이다. 또 이때의 接尾辭 /-방/은 女性에 對해서만 使用되고, 男性을 指稱하는 데는 使用되지 않음이 그 特徵이다.

9) 金亨奎, 「國語史研究」(서울: 潮閣, 1962), p.123.

이와 같은 人稱名詞를 派生시키는 接尾辭 /-방/의 語源은 아직 分明치 않다. 歷史的으로 보아 實辭의 虛辭化 卽 過去에 自立形式이던 많은 形態素가 漸次 變하여 오늘에 와서는 派生接尾辭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때, 이 /-방/ 接尾辭도 過去에는 自立形式으로 使用되었던 것이 아닌가 推測되기도 하나, 오늘날 文獻上으로나 方言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文獻上에서 接尾辭 /-방/의 使用例를 찾아 볼 때, 그 淵源이 新羅時代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鑿童房乙 夜矣卯乙抱遺去如 <鑿童誦>

追封國師……至今稱曰 國師房 <三國遺事 卷五>

위 文獻 語例의 “房”에 대해서 梁柱東 博士는 “人稱下「방」을 附加함은 現行語의 「안즌방이, 주정방이, 거렁방이, 게으름방이」等 許多例가 있는데, 그 淵源은 眞작 羅代로부터이다.”라고 하였으며,¹⁰⁾ 여기서 “房”은 固有語 “방”의 音借字로 보았다.

方言에서는 前揭한 語例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語基에 後接해서 人稱名詞를 派生시키는 卽 人稱接尾辭의 職能을 가진다.

이 /-방/類 接尾辭는 日本語에도 存在하는 것으로 보아지니, 日本語에서 남의 이름 밑에 붙여 尊敬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ハシ[haj]/이 있으며, 또 日本 西部 方言에서도 다음과 같은 語例를 찾아 볼 수 있다.¹¹⁾

イトハン [i-to-haj] (아가씨)

ゴリヨハン [go-rjo-haj] (아내에 대한 높임 말)

위 語辭에서 /ハシ[haj]/은 國語의 /-방/과 같은 職能을 가진 人稱接尾辭로 보아진다. 그런데 國語의 /-방/은 그 語頭 子音이 /P/입에 대해서, 日本語의 接尾辭 /ハシ[haj]/은 /h/音으로 서로 差異가 나나, 이것은 韓國語와 日本語는 子音對應에서 韓國語音 /P/는 日本語 /h/音에 對

10) 梁柱東, 「古歌研究」(서울:博文出版社, 1954), p.448.

11) 築島 裕, 「國語學」(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70), p.252.

應되는데, 日本語의 /h/音도 古代에는 韓國語와 같은 /P/音이었다고 보고 있기에 別 問題될 것은 없다고 본다.¹²⁾

다음에 韓日 兩言語에서의 子音對應에 關聯되는 몇 語例를 例示하여 본다.

〈韓國語〉	〈日本語〉
(田) pat	hada
(鳩) pitwigi	hato
(光) pikkal	hikkari
(針) panwi	hari
(原) pəl	hara
(蜂) pəl	hačči

以上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日 兩國語에 있어 /P/音과 /h/音은 서로 對應關係에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韓日 兩國語間的 이와 같은 接尾辭의 類似性에 대해서는 以上 論述한 /-개, -바리, -다리, -방/ 外에 다른 接尾辭에도 相當數가 있는 것으로 想定되니, 이것은 앞으로 國語와 日本語와의 關係와, 또 그 言語系統을 究明하는 데도 示唆됨이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IV. 結 論

以上 濟州島方言의 接尾辭에서 人稱接尾辭를 抽出 그 目錄을 提示하고, 이中 /-개, -바리, -다리, -방/ 等에 대해서 考察하여 보았다.

이들 接尾辭는 어떤 語根이나 品詞의 意味部에 後接해서 人稱名詞를 派生하고, 그 名詞가 指示하는 사람을 指稱하는 데도 쓰이니 人稱接尾辭라고도 할 수 있겠다.

12) 金田一京助, 「國語史」(東京: 刀江書院, 1963), p.80.

이들 人稱接尾辭는 오늘날 依存語素(bound form)로서 그 意味의 獨立性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오늘날 그 語源을 찾아 보기란 어려운 일이나, 本來 接尾辭는 文法的인 職能보다도 새로운 意味를 더해 주는 語彙的인 機能이 主가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接尾辭는 그 根源이 大概 獨立된 뜻과 形態를 가진 自立形式이었으리라는 推定이 可能한데, 이들 /-개, -바리, -다리, -방/의 考察을 통해서 볼 때, 이들 接尾辭는 原來 自立形式이었던 것이 漸次 그 意味機能이 衰退하여 마침내는 虛辭化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本島方言은 接尾辭에 있어서도 陸地語에 比해서 多樣하고 複雜한 樣相을 띠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들 人稱接尾辭의 接尾作用에서 보다도 本土語에 比해서 顯著함을 볼 수 있겠으니, 오늘날 本島方言에 있어서 方言化의 促進은 이와 같은 接尾辭의 接尾作用에 있다고 보아진다.

이들 人稱接尾辭는 Altai 語族 一般에 存在하는 共通的인 것으로서 國語의 系統을 밝히는 데 있어서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다.

특히 隣近 日本語에도 이들 接尾辭와 同類라고 생각되는 人稱接尾辭를 찾아 볼 수 있음은, 오늘날 國語와 日本語는 그 構造上의 顯著한 一致에도 不拘하고 語彙 및 文法的 要素의 一致는 매우 貧弱하여, 兩國語間의 關係 究明이 어려운 이 時點에서, 이 人稱接尾辭 等 接尾辭의 比較는 兩國語間의 關係 乃至 日本語의 系統을 究明하는 데도 示唆됨이 있으리라고 본다.

本島方言에 있어 이와 같은 接尾辭를 後接시킴으로써 많은 方言語彙를 派生케 하였고, 또 이들 接尾辭의 附加는 意味上으로도 매우 多樣性을 가져 오게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教育의 普及과 文化의 急進의 發達에 따라 方言 固有色을 지닌 特殊方言語彙는 거의 消滅 段階에 놓여 있다.

參 考 文 獻

- 康琪毓；“接尾辭 ‘개’의 考察”，「東岳語文論輯」4，東國大，1966。
- 高永根；「國語接尾辭의 研究」，서울：光文社，1974。
- 金桂坤；「現代國語의 조어법 연구」，연구보고서 어문학제 3，1969。
- 金亨奎；「國語史研究」，서울：一潮閣，1974。
- ；「國語方言研究」，서울：서울大學校 出版部，1974。
- 徐炳燾；「現代國語의 語構成研究」，1975。
- 石宙明；「濟州島方言集」，서울：서울신문사 출판부，1947。
- 沈在笑；「國語語彙論」，서울：集文堂，1982。
- 梁柱東；「古歌研究」，서울：博文出版社，1954。
- ；「國學研究論叢」，서울：乙酉文化社，1962。
- 俞昌淳；「語彙史研究」，서울：三友社，1975。
- 李基文；「國語學概說」，서울：民衆書館，1974。
- 李崇寧；「國語學論叢」，서울：東洋出版社，1960。
- ；「國語造語論叢」，서울：乙酉文化社，1961。
- 李熙昇；「國語學概說」，서울：民衆書館，1955。
- 陳泰夏；“固有語化된 漢語 接尾辭 ‘지(子)’에 대하여”，「언어학」3，1978。
- 崔鶴根；「國語方言學序論」，서울：精研社，1959。
- 玄平孝；「濟州島方言研究」，서울：精研社，1962。
- 金田一京助；「國語史」，東京：刀江書院，1963。
- 河野六部；「朝鮮方言學試叢」，서울：東都書籍，1945。
- 大野 晉；「日本語の 起源」，東京：岩波書店，1974。

<summary>

A Survey of Suffixes in Cheju Dialect

—With Reference to Personal Nouns—

Hong-shik Kim

The author has extracted the personal suffixes from the suffixes in the Cheju dialect and shown their lists in this paper. Among these personal suffixes I have surveyed the ones, such as /-kε, -pari, -tari, -paŋ/.

It seems to me that the Cheju dialect presents a picture of variety and complication in its suffixes, compared with those of the mainland dialects. The Cheju dialect, when compared with the mainland dialects, is quite different in the function of the personal suffixes. Today the Cheju dialect is believed to be unique in the function of suffixes like these. Moreover, the addition of these suffixes to the stems or roots varies the meaning of the words.

These suffixes can mostly be supposed to be free forms by origin. The suffixes /-kε, -pari, -tari, -paŋ/ here considered can be seen to have been originally free forms, and then with time the gradual decay of the function of meaning made them bound forms.

These kinds of personal suffixes can be found in the same family of languages, especially in Japanese. This fact can give us suggestions for the study of the lineage of our mother tongue.